

# 마렉백신 세일즈 5년 (Ⅲ)

## 고 규 락

(축산기구사 대표)

### 1. 냉동건조 마렉백신의 수난

#### 찾은 사고 발생

양계업계의 총아로 등장한 DEPTAVAC 의 뒤를 이어 각광을 받게 되었던 TAD 냉동건조 마렉백신의 인기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접종직후부터 폐사가 난다든가 혹은 접종후 발육성적이 뒤진다든가 또는 마렉병에 걸려 50%까지의 폐사가 났다는등 별의별 말썽이 많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계업계의 희귀약으로 군림했던 이 TAD냉동건조백신이 불과 몇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원망어린 눈총을 받으며 외면을 당하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문제의 마렉병 발생건수는 전체공급량에 비하여 0.5%도 안되는 극히 적은 량이지만 전체양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TAD냉동건조백신 뿐만 아니라 뒤따라 D사에서 들어온 K냉동건조마렉백신은 TAD 냉동건조백신의 사고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사고발생율이 높아 양계업계에 큰 물의를 일으키는 물론 뒤따라 들어온 H사의 M백, S사의 W백, D사의 N백등 우리나라에 들어온 전 건조백신의 판매에 크나큰 악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TAD냉동건조백신의 판매초기와 같이DEPTAVAC과는 판매경쟁자라고 하기보다는 상호협조자라고 할만치 백신판매에 상승효과를 거두었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D사, S사, H사 등 수개업체에서 같은 건조백신을 수입한데다

가 결과마저 좋지 않아 업계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또한 외면을 당하게 되었던것이다. 물론 물건이 흔하면 천하여지고 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한때 금값보다 비싸다고 칭송이 자자하던 이 약품의 인기가 이렇게도 빨리 급전직하(急轉直下) 할줄이야! 뿐만아니라 출근하여 자리에 앉으면 혹거래처에서 백신사고에 대한 전화나 걸려오지 않을까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 었다.

### 2. 냉동건조백신의 판매경쟁

마렉백신의 시장이라야 전국적으로 40여개에 불과한 대소(大小)부화장(백신접종을 하는 부화장)으로 4개업체에서 수입한 같은 냉동건조마렉백신이 서로 시장(거래처)확보를 위하여 과장선전을 하는가 하면, 가격인하, 유대관계를 앞세운 칩투공작, 덤제공(서비스 아이템의 제공) 세미나 혹은 주식제공, 심지어는 여타 경쟁업체의 험뜯기등 눈에 거슬리는 일이 허다하였다. 물론 세일즈맨 전원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부화장 또는 양계인모임에서 자기 회사가 공급하는 ○○백신이 가장 역가가 높고 메이커의 역사도 깊어 안심하고 접종할수 있다느니 심지어는 사고발생시는 전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다.

냉동건조마렉백신 판매입체간에 벌어진 과잉경쟁은 국내 유일의 동결백신이고 또 가장 뿌리가 깊은 DEPTAVAC에게 어부지리(漁

夫之利)만은 안겨주었다. DEPTA VAC은 오리종란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또 액체질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백신역가가 오래도록 유지되어 건조백신과 같이 사고가 잦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냉동건조백신간의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DEPTA VAC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지고 거래처와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며 가격역시 거이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 냉동건조백신의 검정결과

모든 생물학제제의 검정결과는 공포하지 않는 것이 담당기관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냉동건조마렙백신의 불합격건수가 동결백신에 비하여 훨씬 높은것만은 사실이었던것 같다. 동결백신은 수송 또는 보관중 액체질소의 소진(消盡)으로 인한 사고외에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지만 냉동건조백신은 보관, 수송중 적정온도의 유지에 소홀하면 사고의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동결백신만 못하리라고 한다. 내가 있던 TAD냉동건조백신만 하더라도 검정결과가 좋지 않은 LOT가 더러 있었다. 이 검정결과가 백신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내가 모부화장을 방문하여 우리 냉동건조백신을 써주도록 권하였던바 전번의 검정불합격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을 알세워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검정불합격사실을 알았던간에 나로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다만 면전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은연중에 힌트를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 마렙병의 발생과 보상문제

마렙병은 급성과 만성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급성은 발생율이 극히 적고 대부분 만성으로 2-3개월령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마렙백신의 효과역시 접종후 만성의

경우 2-3개월을 경과해야 하기때문에 사육자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손실은 너무나 크다 그러므로 부화장이나 사육자측에서 백신선정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함은 당연지사 아닐수 없다.

만약 백신의 하자로 인한 폐사라고 규명되면 약값(백신)는 물론 병아리값, 폐사당시까지의 사료값 사육관리비용등 육성비 전액을 변상해야 된다는 큰 문제가 생긴다. 사육자의 주장으로는 설령 위 전액을 변상받았다손 치더라도 한번 농사는 망쳐 놓았으니 시간적으로 상당기간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에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까지 강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 현재는 양상이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백신공급자와 부화업자간에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과 보상관계를 명문화하여 거래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 또 내가 직접 목격했던 사실로 병아리 예약시 XX백신을 접종해 달라, 혹은 자기입회하에 접종해 달라, 마렙백신 접종확인증을 별도로 서면화 해달라는 등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복잡성때문에 부화장측에서 더욱 백신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마렙백신접종증을 병아리상자에 붙이는 것은 ○○백신을 접종했다는 전시효과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무슨백신을, 어느부화장에서 누가 언제 접종했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광의의 보상문제까지도 내포한 보증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부화장측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이유는 요즈음과 같이 채란계 병아리가 모자라 현찰이 아니면 그것도 부화장 형편에 따라 배정해 주는대로 받지 않으면 병아리 얻기가 어려운 때가 아니었다. 그때는 생산이 과잉되어 외상판매는 물론 사육자에 억지로 팔기는 것이 예사였던때라 조그만 하자만 있으면 이핑계 저핑계 병아리대금지불을 거부하던

가 아니면 미루는것이 다반사(茶飯事)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마렉백신공급자에게 까지 크게 미치는것이다. 마렉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전량 면역되는것이 아니고 몇%의 폐사는 나오는것이 예방약의 효과일진데 A백신접종군은 폐사가 몇%나왔는데 B백신접종군은 몇%나 된다고 하는가하면 심한사람은 A부화장병아리는 몇%의 폐사가 나왔는데 B부화장의 병아리는 몇%이상의 폐사가 나왔으니 병아리 대금중에서 공제하든가 단가를 낮추어야 하겠다고 맞선다. 뿐만아니라 아주 심한 사람은 마렉병으로 인한 폐사가 몇%이니 손해변상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지능적인 사람중에는 마렉병에 틀림없는것을 지방가족보건소, 혹은 가축위생연구소에 검진을 의뢰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후 부화장에 달려와 마렉백신을 접종하지않고 그냥배부하여 너무나 많은 폐사가 났으니 직접가서 확인해 보고 응분의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잔여량은 전부 인계받고 아직까지의 사육비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사람 혹은 다른 병아리도 무상으로 보충해 달라는 사람도 있다.

만약 자기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실을 보도하여 부화장은 물론 백신공급업자까지 문을 닫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며 철을 두고 부화장을 찾아와 여러손님앞에서 큰소리로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다. 부화장측에선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얼른고 달려서 대부분의 사고는 원만한해결을 본다. 머리끝까지 성이난 사육자를 능수능난한 수완으로 설득시켜 달래보내는 부화장측의 처세술에는 다시한번감탄하지않을수없었다.이래도 안되는 사육자는 백신공급자에게 떠미루면서 자기는 뒷전으로 물러앉아 중재역활을 한다. 그러면 백신공급자는 가급적 사육자와는 직접적인 협상을 피한다. 왜냐하면 일단 협상에 응하여 적정 선에 합의를 보게되며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사운영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

치게 되기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화장측에서는 입장이 좀 다르다. 오히려 간접적인 위치에서 상호간의 운수로 돌려 백신공급자, 부화장 사육자 삼자공히 손해를 보고자 제의한후 다시한번 육추를 하여 만회를 하도록 권유하는것이다. 물론 속셈은 판곳에 있지마는! 대부분의 고집센 사육자도 이런 절충안에는 찬동하지마는 끝내 외고집인 사람에게는 재검진을 의뢰하는 한편삼자공동으로 병인규명에 나선다. 우리는 전국 부화장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접종한 LOT가 이 부화장뿐만 아니라 A.B.C.D등 몇개 부화장에서 똑 같이 접종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고 또 당신이 분양받은 병아리역시한 파수에○만수에 달하는데 유독 당신이 키운 병아리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잘못 접종했을리 없으니 직접 확인해 보라고 배부 명단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은 백신의 잘못도 병아리의 잘못도 아니고 사육자 자신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대항도 해보며 육추일기 기타 합병증의 유무도 확인하는 한편 양계계의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허다하여 전세계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다는 신문잡지의 기사도 복사하여 갖다주기도 한다.

또 마렉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절대적이 아니며 사육환경과 관리상태가 보다 더중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수궁이 가는지 수그러지기도 하여 유아무야 넘어가기도 한다. 대부분의 병계는 호흡기 질환 및 콕시듐등 복합성을 지니고 있어 병인규명이 어렵다. 그러나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가족보건소나 가축위생 연구소에 가검물을 의뢰하라고하면 그곳은 자기들 일반사육자보다는 부화장이나 백신공급업체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정성이 결여된 결과로 믿을수없다고 버티며 자기가 잘 아는 수의 차에게만검진을 의뢰해야겠다는 고집통이 있었다

## TAD본사 세일즈맨과 사고현장 확인

위림상사에서 공급한 냉동건조 마렉백신 을 접종한계군에서 몇건의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직접 내한하여 병인규명과 보상책을 강구해 달라는 전문과 서신을 TAD본사에 내어 해외 판매책임자가 직접왔다. 우선 지방의 C씨에게 전화연락을 해 놓고 그곳을 방문하였다. 무더운 여름철이라 C씨는 시원한 청량음료수와포도등 과일을 내놓고 대접을 하였다. 아마도 외국손님이라 각별한 신경을 쓴탓인지 동행한 우리의 기분도 흐뭇하였다. 대충 현재까지의 사육규모를 듣고 양계장을 둘러보고 폐사된 닭 몇마리를 확인하였다. 2200여수를 입추하 3개월이 경과하는동안 400여수가 폐사되고 남은 닭이 1800여수가 된다고 하며 확인해 보라고 한다. Cage사육 사육중인것은 쉽사리 파악이 가능하지만 평사인것은 확인할 길이 없어 액면 그대로 믿고 변상해 주기로 하였다. 변상금이라야 400불이 불과한 금액으로 TAD사와 같이 큰 회사로서는 별 문제가 아니나 한국에는 처녀수출된 마렉백신이고 앞으로의 시장개척을 위해서도 이만한 희생은 작아하였던것 같았다.

이 양계장은 입지적인 조건도 그렇거니와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며 사육관리 상태도 괜찮아 의심이 날 정도였다.

다음은 인천시 소재 L씨의 양계장을 방문하였다. 앞, 뒤, 옆집모두 양계장으로 둘러쌓여 너무나 밀집된 상태인데다가 계사의 지붕마저 너무 낮아 통풍이 없되어 공기가 몹시 탁하였다. 사육규모에 비하여 주위환경이 좋지않아 아무리 마렉백신을 접종하였다손 치더라도 호흡기질병등 복합성 질병이 불가피할 정도라고 그친구는 지적하였다. L씨는 외국사람이 직접 방문까지 하여 미안하다는 인사까지 하여서인지 아니면 사육환경의 미비점을 자인해서인지

별다른 항의가 없었다. 경위야 어떻던 막대한 손해를 보고도 |아부말없는 L씨에게 미안감을 가질뿐 별다른 보상책을 강구해 주지못해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었다.

그다음 방문한곳이 인천시의 성계원내 K씨 양계장이나. 성계원은 음성나환자의 집단양계장으로 불우한 생활환경에서 상부상조하여 공동생산 공동출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해 보려고 뭉쳐진 집단이다.

이 음성 나환자의 협동농장은 전국 방방곡곡에 수없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개개인의 사육규모는 크지 않으나 조합단위의 사육규모 몇만주로 부터 몇십만수의 규모로 우리 양계 분야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간에 유래가 또한 두터워 사료 부화 약품메이커들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것이다. 그런 관계인지 우리를 안내한 H부회장의 병아리 판매원은 K씨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K씨의 양계장에 당도하여 방문사유를 말한 즉 협상곳은 얼굴에 열을 올려 어찌할바를 모르고 단숨에 달려들어 먹살이라도 잡을듯한 기세였다. 이윽고 양계장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 벽슬빛이 창백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깡마른 닭 5-6마리를 한손에 움켜쥐고 나와 외국인 면전에서 내동맹이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한편 양계장문을 열어제치며 남은 닭을 다 갖어 가라는 것이다.

깜작놀란 TAD사 외국판매책임자는 귀사하여 상사와 의론하여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빠져나 왔다. 우리는 이 몇곳에서 수집한 폐계를 드라이아이스에 채워 항공편으로 TAD사에 탁송하였다. 무려 그때의 화폐로 200불 가까이 지불하면서까지!

낭비인줄알면서 TAD사 해외 판매책임자의 출장복명자료를이니 수출통관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였다.